

일본과 홍콩에서 받은 인상

김성권 / 대한결핵협회 관리부장

결 핵관리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결핵 협회 직원 20명이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6일까지 우리나라에 이웃한 일본, 홍콩, 대만의 국가결핵관리 사업과 결핵 협회의 활동상을 돌아보고 정보를 교환한 바 있었다.

결핵관리 및 각 협회의 활동상에 대하여는 본회 조근수 사업부장이 보건세계 7월호에 기재하였는바, 본인은 결핵이야기 이외의 그들 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적어 보기로 하였다.

■ 일본 ■

비에 젖은 KAL기는 우리일행을 일본 成田(나리타) 공항에 내려 놓는다. 꽤 청한 날씨가 반갑게 맞이해 주고 있었다.

일본의 면적은 37만 km²로서 국토의 72%가 산지이며 인구는 1억 2천 5백만이나 되는데 우리 교포도 60~70만이 살고 있다. 기온은 대체로 온화하고 사계절이 뚜렷하며 강우량이 많은 탓에 울창한 산림과 아름다운 초원이 많으며, 현재 활화산이 67개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를 강제로 함방하여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을 주었고, 6·25 동란으로 경제부흥을 이뤄 제3위의 경제대국이 된 점, 현재 우리나라와의 무역역조 현상 등 여러 생각들이 머리에 스쳐간다.

동경 선샤인 시에 있는 프린스 호텔에 여장을 풀고 저녁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식성에 맞춰 근처 음식점에서 하였는데 우리가 택한 음식은 볶음밥에 불고기를 얹은 것으로 양도 적당하고 맛도 그런 대로 입에 맞아 그 후에도 여러 번 들렀다.

새벽 뉴스를 들으니 전국적으로 비가 예상된다고 하며 우산을 준비하라고 한다.

우리나라에 내리던 비가 동쪽으로 이동중인 모양이다. 호텔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결핵연구소를 방문하기 위하여 오전 9시에 전철역까지 물걸치는 듯한 군중 틈에 끼어 바삐 걸었다.

걸어가면서 길가에 보이는 일본사람들의 사는 모습에서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고 구석구석이 정돈된 질서를 보았다. 일본 결핵관리와 결핵연구소의 역할에 대하여는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략

하기로 한다.

하늘에는 비를 잔뜩 머금은 듯한 구름이 무겁게 깔려 있다. 오늘은 역사고적을 찾아 보는 날로서 우리 일행은 둘로 나뉘어 후지산과 동경 시내를 관광키로 하였는데 나는 오락가락하는 비가 말끔히 그쳐 주기를 바라면서 후지산을 택했다.

후지산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일본에서 가장 높고(3,776m) 아름다운 산으로서 계절과 장소에 따라 각기 다른 매력을 풍기는 산이다. 후지산은 주변에 5개의 맑은 호수를 거느리고 있는데 호수마다 절경이다.

등산은 연중 7,8월에만 허용되고 해발 2,400m에 있는 휴게소까지는 아스팔트 포장에 잘 되어 있어 언제라도 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이곳에 버스로 도착하였을 때에는 비는 그쳤으나 안개바람이 너무 심해서 사진 촬영도 할 수가 없었다.

나뭇가지에는 이제야 잎들이 싹터 나 오고 있었으며 응달에는 미처 녹지 못한 눈이 쌓여 있었다. 휴게소에서 기념품을 구경하며 좀 쉬다가 안개비 속에 숨어 자태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후지산에 아쉬움을 남기고 하코네로 하산하였다. 일본인의 신앙이요 자랑이며 자존심이라는 후지산은 강우량이 많고 온도가 적당하여 모든 식물이 아름답고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는데 식물연구소가 많이 눈에 띄었다.

하코네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마치고 산 속에 파묻힌 이 지역의 온천장, 산과 공원, 호수 등을 두루 살펴 보려 하였으나 비가 다시 오기 시작하여 이를 포기하

고 후지산 뒤편에 있는 후지산 5호(湖) 중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하구호(河口湖)로 향하였다.

이곳의 기후는 아주 맑아 후지산 산정을 볼 수 있어서 오전중에 아주 망가져 버린 기분을 상쾌하게 돌려 주었다. 호수에서 배를 타고 바라보니 아름다운 건물들이 호수에 잠겨 있는 풍경과 조화를 이루는 후지산의 정경은 듣던 대로 아름답음 그대로였다.

산정은 아직도 눈이 남아 있는데 구름속을 들락거리면서 그 자태를 유감없이 뽐내고 있었다.

일본에서 느낀 점은 '자제하는 사회'라는 것이다. 규격화된 듯한 사회이고 거리의 차량들의 움직임 보면서 질서 있는 사회임을 느꼈다. 감정을 다하여 큰소리를 내는 사람도 없었고, 쉬는 시간에는 어김없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진지하였다. 노인네들이 일하며 행복해 하는 모습은 보기에 매우 좋았으며, "하이" "하이" 하면서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명하는 데서 정이 흐르는 듯하였다.

■ 홍콩 ■

또 새 날이 밝았다.

「주님 일어났습니다요.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 뜻대로 살아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을 기억하면서 짐을 정리하였다.

오늘은 홍콩으로 가는 날, 오전 11시에 비행기가 이륙할 나리타는 일기가 쾌청하여 기분이 좋았고 말로만 듣던 홍콩을

보게 된다는 기대에 좀 들뜬 기분이기도 하였다.

공항에 도착하니 기다리고 있던 고건 여행사에서 그랜드 프라자 호텔로 안내한다. 짐을 풀고 가벼운 옷으로 갈아 입은 후에 저녁식사 시간까지는 여유가 있어 홍콩 섬에서 제일 좋은 명당자리를 가보기로 하였다.

제일 좋은 명당은 여러 사람이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이곳에 천세문, 만수정을 지어서 모든 이에게 운수를 빌도록 하였다 한다. 이는 도교에 의한 무속 신앙으로서 문을 통과하면 천세를 누린다는 천세문과 이곳을 밟으면 만수를 한다는 만수정을 원색으로 세워 놓았다.

명당 옆에는 그 유명한 영화 “모정”을 촬영한 기념으로 이름 붙여진 “모정의 언덕”이 있는데 조 부장님께 기념촬영을 부탁하니 모정의 주재가를 부르면서 셔터를 누른다.

그래서 그 영화를 회상하며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주인공이 된 듯 포즈를 취하였는데 그 후 사진을 보니 모델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가 보다고 생각됐다.

1997년도에 중국에 반환키로 된 홍콩은 홍콩 섬과 구룡 반도로 구분된다. 홍콩 섬에는 모든 육교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결혼예식장과 여관을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돌섬이라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공장도 없다.

이곳은 빈부의 차가 매우 큰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한데 어우러져 사회를 만들고 큰 불평불만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

이란다.

홍콩의 모든 땅은 정부 소유이다. 그 위에 집을 지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건물의 규모, 건축자재, 사용용도 등을 감안하여 건물의 수명(50~100년)이 결정된단다.

사용연한이 거의 되면 건물관리가 소홀하여 새로 건축한 건물과 대조되어 미관이 좋지 못하다. 연한이 경과되면 그 자리에 초현대식 건물이 들어서는데 홍콩 섬의 중앙시가에 있는 프라자 호텔은 78층으로 아시아에서 제일 높고 건물의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채광이 되도록 유리로 건축하여 기네스 북에 오르는 등, 새로 건축되는 건물은 세계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없을 만큼 새롭고, 크고, 아름답게 짓도록 행정지도를 한다고 한다.

홍콩의 아파트는 보통 30층 이상으로 상류층이 30평 정도에서 산다는데 구입가는 5~7.5억 원이고 월세는 250만 원 정도라 한다.

구룡 반도와 홍콩 섬을 잇는 해저터널은 2.2km로 1974년도에 銅파이프로 만들어졌다 한다.

이 빅토리아 해협은 수심이 깊어서 교각을 세울 수도 없고 해저로 터널을 뚫을 수도 없기 때문에 銅재질로 터널을 만들어 띄어 놓은 다리이다.

이 다리는 이가성이라는 부호가 놓았는데 처음에는 개통 후 50년간 통행세를 받아 건설비를 회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이 다리 개통 후 자동차가 급증하여 5년만에 건설비를 완전 회수하였다 한다.

현재 14개의 개찰구에서 받아들이는

통행료가 홍콩조폐공사에서 돈을 만들어 내는 속도보다 빠르다고 안내원은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인지?

오늘은 홍콩에서의 마지막 날. 해장국 집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해양공원으로 향하였다. 이 공원은 배를 타는 선주들이 주주가 되어 바위산 가파른 해안주변에 위탁시설을 만들어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 케이블 카, 돌고래 쇼, 물개 서식지, 수족관 등 일년에 한 가지의 새로운 위탁시설을 추가해 가면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위탁지역으로 만들고 있다고 한다.

공원에 올라가는 케이블 카는 한 대에 여섯 명이 탈 수 있고 한 줄에 120대씩 두 줄이 있는데 평일에는 한 줄만 운행하고 있었다.

내려올 때에는 네 대로 연결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또한 장관이다. 산 밑에는 중국에 있는 자금성을 축소하여 만들어 놓았고 한편에는 중국 고대로부터 유명한 사건들을 석재로 표현하여 각 방에 설치, 전시하고 있었다.

자금성을 비롯하여 많은 건물과 장식물들에 빨강색, 초록색 그리고 노랑색이 많이 쓰이는데 이는 빨강색은 행운을, 초록색은 건강을, 노랑색은 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세 가지를 갖추어야 행복해지므로 이를 기원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결혼 때에는 모든 예물을 이 세 가지 색깔에 맞춰 준비한다고 한다.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다. 한국 사람이 경영하는 음식점이 많은데 된장찌개, 삼계탕, 돌솥밥, 불고기 백반 등이

홍콩에서 제일 좋은 명당자리는 여러 사람이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 천세문과 만수정을 원색으로 지어 놓고 지나다니는 모든 이에게 운수를 빌도록 하였다.

있는데 음식맛이 거의 한국에서와 비슷하여 먹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

진로 소주도(1병에 5,000원) 얼마든지 마실 수 있었으나 하루 일정을 다 마친 후 호텔에서 조금씩 하였다. “하버 크루즈 디너”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남녀 마술사가 나와 묘기로 많은 박수를 받고, 가수는 “돌아와요 부산항에”, “동백아가씨”, “아 대한민국” 등 우리나라 노래를 잘도 부른다.

과반수 이상이 한국사람인 듯싶은 관광객들은 흥에 겨워 무대에 나가 몸을 흔든다. 볼품없이 떠들고 있는 그들을 보고 있노라니 역겹기까지 하였다. 우리 일행은 교양스럽게 행동하면서 자제하였다.

음식맛은 별로 좋은지 모르겠으나 죽엽청주 맛은 한국에서와 달라 기억에 남는다. 이 식당은 큰 배에 설치되어 있는데 식사가 시작되면 홍콩 섬과 구룡 반도 사이(빅토리아 항)를 돌면서 여흥을 즐기도록 되어 있다.

비에 젖은 밤하늘 밑, 불빛으로 아름다운 건물에는 “삼성” “금성” “SKC”의 선전탑도 보인다. (계속)

†